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향심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106 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탈출22,20-26
 [화답송] 시편18(17),2-3,7,33,44-4,47과51(◎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별,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제 2독서] 1테살1,5-10
 [복음 환호송] 요한14,23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마태22,34-40

성가	8시 미사	입당 446	봉헌 215 511	성체 172 159	파견 241
	11시 미사	입당 446	봉헌 215 511	성체 172 159	파견 24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30주일(10월 26일)		연중 제31주일(11월 2일)		연중 제32주일(11월 9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김말가리다(미숙)	김안토니오(휘)	조레지나(선덕)	이바로(명국)	황데레사(혜정)
제 1 독서	정프란치스코(일환)	심미카엘(태규)	이바로(명국)	최다니엘(대연)	강요한(신호)	허라우렌시오(순구)
제 2 독서	정글라라(영희)	심헬레나(승화)	정스텔라(애리)	이콜롬바(정연)	김안젤라(영선)	문콜롬바(지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생명의 말씀

이웃에게 눈을 감으면 하느님도 볼 수 없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진 않더라도 명절 같은 때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끼리 끝까지 즐겁게 지내려면 ‘정치 얘기는 절대 금지’라는 함구 규칙이 암암리에 가족들을 지배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요즘 교회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견해 차이로 서로 생각이 엇갈리면서 찬성(지지)과 반대(비난)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를 몹시 불편해하는 가슴 아픈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름’은 생각의 ‘차이’일 뿐 ‘틀림’은 아니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 사랑 - 이웃 사랑’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경천(敬天)’이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애인’(愛人)이라 합니다.

이 ‘경천애인’을 우리 그리스도교의 최고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데, 구약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분량의 ‘율법’ 내용을 예수님은 너무나 명쾌하게 두 가지 ‘사랑’으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한 위치, 똑같은 무게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느님 사랑’만 강조하셨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느님과 대화 나누고, 하느님에 푹 빠져 살면 된다는 식의 ‘혼자만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만약 예수님이 ‘이웃 사랑’만을 중요한 계명으로 내놓으셨다면, 마치 종교가 아니라 박애주의를 실천하는 ‘자선단체’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은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어느 한 쪽으로 너무 쏠려서도 안 될, 즉 ‘이웃 사람들을 무시한’ 오로지 하느님 사랑만도 아니고, 또 ‘하느님을 외면한’ 단순한 이웃 사랑만도 아닌, 하느님과 이웃 모두를 향한 ‘두 사랑’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교황인 베네딕도 16세 교황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웃에게 눈을 감으면 하느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웃 문제, 사회적 문제보다도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살짝 생각의 각도를 비틀어 봅니다.

만약에 악마의 유혹이 있다면 우리도 자칫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아주 열심히 철저히 하느님을 향하도록 부추기면서, 그렇게 하느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다른 곳에 한눈팔아서는 안 되고 세상과 이웃에게 시선을 흐뜨리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아니, 내가 딴 데 한눈을 팔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을 따르겠다는데, 이런 나를 보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유혹입니다.

혹은 ‘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고,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유지하기도 힘든데, 남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챙기라는 말, 내 코가 석 자인데.’ 라는 생각 또한 유혹입니다.

유혹은 다독이며 달랠 문제가 아니라,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명찬 신부
서울 대교구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사목 평의회 구성표

분과	이름	세례명
회장	이인학	시몬
부회장	정태준	안토니오
	김승희	데레사
기획분과	이영길	안드레아
전례분과	정일양	안드레아
선교분과	김경년	베드로
교육분과	변귀태	성우안토니오
청소년/성소분과	김민규	바오로
구역분과	허순구	라우렌시오
사회사목분과	이선희	막달레나
연령분과	지영남	요한
홍보분과	천종욱	다니엘
시설관리분과	조관식	분도
여성분과	장희숙	루시아



* 봉사자들께서 섬김의 마음으로 봉사하여 본당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향기

그러니 깨어있어라

“주님, 이 성수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몰아 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저는 좀 칠칠치 못합니다. 뭔가를 잘 잃어버립니다. 유럽 출장 며칠 동안 선글라스와 노트북, 비행기 표, 그리고 지갑을 차례로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최근 소중한 성물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수중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저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처음 것을 잃어버린 뒤에 그 사실을 숨기고 얼른 똑같은 것으로 새로 맞췄는데, 그것을 또 잃어버린 겁니다. 가격이 만만찮은 데다 예전에도 실로 귀한 성물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 마음이 매우 아팠고, 요셋말로 ‘멘붕’ 상태를 맞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주운 사람에게 소중한 물건이 되기를 기원했고,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몸 안 다친 것을 다행으로 알자’던 예전과 달리 ‘주님께서 내게 뭔가 신호를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곰곰 묻고 또 묻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불쑥 제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 25,13)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육신은 움직이고 있지만 정신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하여 진정으로 소호를 보내신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 보십시오.” (2코린 13,5),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 등의 말씀을 자각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신 거라고 느낀 것입니다.

사실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고 가시는

지,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릅니다. 현재의 이 삶이 주님의 자비와 은총과 구원과 평화의 선물인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곤궁에 빠지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하고 그리워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 게는 열릴 것” (루카 11,10)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 · 용서 · 은총 · 강복 · 구원 · 생명 · 희망 · 영광 · 평화 · 사랑...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받고 얻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삶을 의식하면서 집과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두 성당을 들어갈 때마다 성수를 찍으며 간절히 간구해 봅니다.

“주님,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배장수 베네딕토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

제1587호 연중 제30주일 2014년 10월 26일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교회의 일치

콜로새서는 바오로 사도의 친저성이 의심되는 제2바오로 서간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편지인데, 이 서간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찬가” (콜로1,15-20)는 창조에 관한 그리스도론적 진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에 속합니다.

바오로는 이 편지의 수신인인 콜로새 공동체가 자신을 모르는 낯선 사람들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콜로 1,4-5;2,1) 그래서 콜로새 공동체는 바오로 사도가 직접 설립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바오로가 에페소에 머무는 동안 그의 협력자 에파프라스가 선교를 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유대계 그리스도교인과 이방계 그리스도교인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콜로새서는 필레몬서와 매우 근접한 편지로서, 여러 번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콜로새서는 콜로새 지방과 그곳의 상황을 잘 아는 익명의 저자가 집필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필레몬서뿐 아니라 바오로와 그의 신학까지 잘 아는 사람으로서 바오로 사도의 권위를 빌려 이 서간을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서간의 집필 동기로는 콜로새에 등장한 이단, 지진으로 인한 질서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 천사 공경이나 음식물 절제 규정 등으로 인한 혼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에 맞서 저자는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며, 그분은 누구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분’ 임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세상과 교회의 머리로서 존재하는 분이며 콜로새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 그분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론은 곧 구원론과 직결됩니다. 우주론적이고 세계적인 그리스도 이해는 믿는 모든 이가 구원될 수 있다는 ‘보편적 구원론’으로 귀결됩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실천적인 권고사항을 이끌어내는데, 곧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새로운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로새서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화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콜로1,16)와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 (콜로 1,18 → 참조)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과 화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간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저자는 신학 전개와 기본 틀과 방향 그리고 초점을 그리스도께 두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만 총명한 의미를 지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을수록 그 존재의 가치는 상승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수신인들은 이제 그 신비를 깨닫고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동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음을 알고 이 지상 것보다 천상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이성근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서울분원장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10월26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박대건안드레아(월년)	박세레나(동신)
	연	양마리아(석순)	조바오로/분다
	연	양마리아(석순)	박데레사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김요한(재복)	김케네스가족
	연	원마리아(순)	윤사비나
	연	오마리아(한덕)	오연식
	연	정요셉/서데레사	정베드로(병구)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채헬렌 생일	자녀들
	생	박시몬(상일)	박글라라(미경)
	생	김도미니코(원조)	김그라시아(정옥)
	생	김도미니코(원조)	이야고보/카타리나
	생	이루도비코(재용)	이야고보/카타리나
	생	장애진 건강회복	강안나(신옥)
10월28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오마리아(한덕)	오연식
	생	최시몬(응일)	이야고보/카타리나
10월29일 수	생	기도해주신분들	채토마스
10월30일 목	연	정명	정안드레아(일양)
10월31일 금	생	봉사자들	채토마스
11월 1일 토	연	연옥 영혼들	꾸리아
	연	이마리아(수영)	이엘리사벳
	연	이요한(희걸)	이야고보/카타리나
	생	헬렌페리(미혜)	김엘리사벳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76	177	30	289
헌 금	\$440	\$1,228	\$46	\$1,714

< 교무금 > \$3,560

윤종진(1-10) 정일양(10) 정영언(9-10) 송분학(12)
박영실(11-12) 김관숙(9-10) 팽현팔(10) 조관식(10)
윤순의(9-10) 김민규(7-9) 정경희(8-10) 최몽열(10)
박종영(10-12) 양우선(9-10) 김정탁(8-10)
김수연(8-10) 장찬호(10-12) 장희숙(1-12)

< 성소후원금 > \$70

박영실(11-12) 송분학(12) 조진행(12)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박영실 \$100 양일규 \$200

< 2차 헌금 > 전교주일 \$656.16

~~~~~ 오늘은 성물방에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11월 위령성월 묘지미사 안내

일시 : 11월 1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Gate of Heaven

\* 아침미사 있습니다.(미사 후 꾸리아 월례회)

◆ 새로 구성된 사목평의회 내용이 주보 3쪽에 있습니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구역장/반장회의 : 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ME 모임 : 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사목회의 : 11월 2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사진동호회 : 11월 2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가톨릭 성서 모임 - 창세기 그룹 참가 신청

문의 : 본당 사무실

신청마감 : 10월 26일(일)

\* 오리엔테이션

장소 : 본당

일시 : 11월 9일(일) 오후 1:30 ~ 3:30

안내 : 본당 말씀의 봉사자들과 조마오로 수녀

◆ Brown Bag 식료품 무료배급 신청

신청 자격 : 60세 이상

배급 일시 : 11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0-11시

장소 : 본당 친교실

신청 :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문의 : 510-580-7880

**10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15-16장**

|      |              |            |
|------|--------------|------------|
| 1 구역 | 10월26일(일) 6시 | 유인웅 데이빗 맥  |
| 6 구역 | 11월 1일(토) 5시 | 이창용 레이몬드 맥 |

◆ 법륜 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일시 : 11월 10일(월) 오후 7시

장소 : 오uckland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 성물 20% Sale ~!!

본당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성물방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성물들을 20% 할인 판매합니다.

◆ 오늘 성모회에서 사과와 단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다음주 11월 2일은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미사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시몬(10/28) : 박인규, 이인학, 엄성섭, 이규주, 최용일, 김원덕, 박상일, 지창민

\* 타데오(10/28) : 최몽열

\*\* 트라이밸리 본당신부님이신 김선류 타데오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11월 1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11:00 ~ 12:15
- 영어미사 12시 30분